

사회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 서울시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Risk Perception : Focused on the Seoul Citizens' Perception

이재완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Jae-Wan Lee(noso791@gmail.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가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위험요인을 자연재해, 기술적 재난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해체 위험, 건강상 위험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회신뢰의 영향력을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신뢰는 모든 유형의 위험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내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믿는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요인을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현대 위험사회에서 위험에 대한 책임이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주어져 있는데, 효과적인 위험 예방활동과 함께 근거 없는 위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위험에 대처하는데 있어 협력을 촉진하므로 사회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위험인식 | 사회신뢰 | 일반화된 신뢰 | 위험요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trust on risk perception. In other words, I tried to analyze empirically how the generalized trust about other people they have based on subjectiv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ffects the perception of risk factors. First, the risk factors that Seoul citizens face in everyday life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natural disaster, technical disaster risk, economic risk, social disintegration risk and health risk. Then, the influence of social trust on each of these risk perception was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trus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all types of risk percep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trust makes low-risk assessments of various risk factors around peopl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risk is given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modern risk society. In order to prevent effective risk,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promote social trust through various activities together with efforts to prevent the spread of unfounded risk will be. And trust among people also promotes cooperation in coping with risks, 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that can build trust among people in their daily life.

■ keyword : | Risk Perception | Social Trust | Generalized Trust | Risk Factors |

I. 서론

과학기술 발달의 부작용으로 위험이 일상화되어 버린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상화된 위험에 비해 원자화된 개인은 상당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 이에 대처하거나 극복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의 다른 사람을 믿는 정도에 따라 동일한 위험상황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위험의 실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위험객관주의와 위험주관주의가 대립해왔다. 위험객관주의(risk objectivism)는 위험의 존재를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위험주관주의(risk subjectivism)는 위험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위험주관주의는 문화적 편향성에 따라 위험에 대한 해석과 관리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1]. 즉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둘러싼 상황이 위험인식 또는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성주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2]. 이러한 사회적 구성물인 위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는 중요한 심리적 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신뢰가 동일한 위험에 대해 인식 주체들 간에 서로 다르게 인식 또는 해석하도록 만든다.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대인신뢰나 대기관신뢰가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 그러나 모든 유형의 위험에 대해 일관되게 대인신뢰나 대기관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아직 뚜렷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신뢰, 즉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의 수준이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즉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위험과 위험인식의 의의

위험은 학문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의 특성인 불확실성과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의내리고 있다[4]. Hohenemser와 그의 동료들(1986)은 어떤 것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정의하였으며[5], Renn(2008)은 인간의 행위나 자연적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의 상태를 위험이라고 정의하였다[6].

사람들은 왜 동일한 위험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가? 위험에 대한 주관주의적 관점은 심리측정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에 기초하여 사람의 주관적 인식 정도에 따라 동일한 위험도 다르게 인식한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일반적으로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이라고 한다. 즉, 위험인식은 위험의 특성, 즉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의 치명성과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왜 사람들이 위험의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이론적 논의들이 시도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리분석과 문화이론이다. 위험인식에 대한 심리분석은 개인을 토대로 한 개체주의적 접근으로 위험에 직면한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판단을 분석한다[7]. 반면 문화이론은 위험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 즉 삶의 방식을 가진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8].

위험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위험과 위기관련 학문분야에서도 여러 학자에 의해 유형화되었다[9]. 위험은 크게 비인간적 힘에 의해 생산되며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와 인간행위의 산물인 ‘인위적 위험’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분류는 ‘외적인 위기’와 ‘제조된 위기’로 규정되기도 한다[10]. Renn(2008)은 위험 요인에 따라 물리적 위험, 생물학적 위험, 화학적 위험, 자연적 위험, 사회-커뮤니케이션선의 위험, 복합적 위험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11].

한편 우리사회의 위험에 대한 분류도 시도되고 있다. 이재열(2005)은 위험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서, 우리사회의 위험의 유형을 지구적 생태위험, 국가적 안보위험, 자연적 재해위험, 기술적 재난 위험, 경제적 생계위험, 사회적 해체위험, 건강의 위험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12]. 이재식(2010)은 전쟁이나 테러 등 전통적인 안보영역, 자연재해나 대형화재 등 재난영역, 범죄나 건강위험 등 국민생활영역, 노사갈등과 지역갈등 등 국가갈등영역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13]. 그리고 김영란(2011)은 위험을 첫째, 실업, 사고, 질병 등의 구사회적 위험, 둘째, 노동시장위험, 셋째, 가정불화나 가계재정 악화 등의 가족위험, 넷째, 환경오염 및 생태위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위험을 이재열(2005)의 분류를 참조하여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 교통사고 같은 '기술적 위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위험', 폭력범죄와 같은 '사회해체 위험', 전염병 같은 '건강상 위험'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2.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2.1 위험인식의 영향요인

위험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Wildavsky와 Dake(1990: 42-44)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15]. 그들에 따르면, 첫째 지식이론(knowledge theory)으로 어떤 기술이나 현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인성이론(personality theory)으로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위험선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위험인식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셋째, 경제이론(economic theory)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신기술이 안고 있는 위험을 더 잘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 반대라고 하는 주장이다. 넷째, 정치이론(political theory)으로 성, 연령, 사회계층, 이념 등과 같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위험인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실증적 분석이 시도되어 왔다. 심리적인 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주관적인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먼저 심리적 변인의 경우 위험기피성향이 클수록 동일

한 위험요인을 더 위험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16]. 이념성향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Choma와 그의 동료들(2013)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17]. Sjöberg와 Wahlberg(2002)에 의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18].

다음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성별의 경우 Savage(1993)는 여성이 동일한 요인을 더 위협하게 평가한다고 하였다[19]. Hakes와 Viscusi(2004)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위험을 낮게 평가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위험을 낮게 평가한다고 하였다[20]. 혼인상태와 자녀수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혼보다 이혼, 사별 등의 경우 및 자녀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다[21].

소득과 계층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이 낮은 가난한 사람이 더 위험하게 인식한다고 하였다[22]. 그리고 Mitchell과 Greatorex(1988)는 사회경제적 지위, 즉 계층이 낮을수록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23]. 주택소유 형태도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Smith와 Tostensson(1997)은 자가소유자보다 세입자가 범죄위험을 더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24]. 한편 직업도 영향을 미치는데, Slovic과 그의 동료들(1985)은 신기술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은 비전문가에 비해 핵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위험요인을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모터사이클, 담배, 주류, 총기류 등 일상적인 위험요인은 더 위험하다고 인식한다고 하였다[25].

2.2 사회신뢰와 위험인식

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사회신뢰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제도가 위험대상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26]. 또한 사회신뢰가 높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7]. 그런데 사회신뢰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 연구한 Poumadère(1995)는

국가 내에서 사회신뢰가 높으면 위험인식을 낮추지만, 국가 간에서는 역설적으로 프랑스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보다 신뢰가 높지만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하였다[28]. 그리고 Viklund(2003)는 사회신뢰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조작화하여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4개국 국민들을 연구한 결과, 국가 내에서는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가 위험을 낮추지만, 국가 간에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29]. 스웨덴 국민들을 조사한 Sjöberg(2001)는 사람들 간의 조화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로 조작화한 사회신뢰가 위험인식을 낮추기는 하지만, 그 관계가 약하다고 하였다[30]. 그러나 위험관리에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사회신뢰라고 조작화하여 스위스 국민들을 조사한 Siegrist(2000)의 연구는 신뢰와 위험인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31].

위와 같이 사회신뢰와 위험 간의 관계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위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해외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논의가 진전되어 온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회신뢰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연구질문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동일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식은 낮아질 것이다.

III. 연구의 모형과 데이터

1. 연구의 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관적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다중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여 통상최소자승(OLS) 추정을 하였다.

$$Y = \alpha + \beta_1 STrust + \beta_2 Sex + \beta_3 Age + \beta_4 Edu + \beta_5 Earn + \beta_6 Class + \beta_7 Job + \beta_8 Hous + \beta_9 Mari + \beta_{10} NCh + \beta_{11} Ide + \beta_{12} Rei + \epsilon$$

여기서, Y는 위험인식, STrust는 사회신뢰, Sex는 성별, Age는 연령, Edu는 교육, Earn는 소득, Class는 계층, Job는 직업, Hous는 주택소유 형태, Mari는 혼인상태, NCh는 자녀수, Ide는 이념, Rei는 종교, α 는 상수, β 는 패러미터, ϵ 는 오차항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서울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위험인식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신뢰이고,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들에서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성별, 연령, 교육, 소득, 계층, 직업, 주택소유 형태, 혼인상태, 자녀수, 이념, 종교 등을 포함하였다.

2. 연구의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시가 조사한 「2013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인구구조와 그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과 시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조사는 층화집락 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통해 서울시내 2만 가구, 15세 이상 47,38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32].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 데이터와 가구원 데이터를 결합(*merge*)하여 만 20세 이상의 표본만을 활용하였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3.1 종속변수의 측정: 위험인식

위험인식은 위험요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재열(2005)이 분류한 위험의 7가지 유형 중 대표적인 5개 유형의 위험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즉 「2013 서울서베이」에서 현대 사회의 위험요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자주 접하는 위험요인인 ‘자연재해’, 기술적

재난 위험인 ‘교통사고’, 경제적 위험인 ‘실업’, 사회해체 위험인 ‘폭력범죄’, 건강상 위험인 ‘전염병’에 대한 피해 정도의 평가로 측정하였다. 그 질문문항은 “아래의 표에 나열되어 있는 위험들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그 응답은 “①전혀 피해가 없다, ②별로 피해가 없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피해가 큰 편이다, ⑤매우 피해가 크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2 독립변수의 측정: 사회신뢰

사회신뢰는 대다수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주제로서 대인신뢰, 일반화된 신뢰 등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화된 신뢰는 호혜성의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33]. 이와 같이 사회신뢰는 사회 내 이질적인 구성원들 간의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로, 본 연구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그 응답은 “①전혀 신뢰 안함, ②별로 신뢰 안함, ③보통, ④약간 신뢰, ⑤매우 신뢰”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3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성별은 여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의 실제 나이(단위: 세)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①초등학교 졸, ②중학교 졸, ③고등학교 졸, ④전문대 졸, ⑤대학교 졸, ⑥대학원 수료 이상”으로 구분해 연속형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은 응답자 가구의 1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세전소득)으로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400만원, ⑤400~500만원, ⑥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연속형으로 측정하였다. 계층은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귀하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①하하, ②하상, ③중하, ④중상, ⑤상”의 5개 구간으로 측정하였다. 직업은 응답자의 근무형태로 무직을 기준으로 관리 전문직,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주

택소유 형태는 응답자의 주거점유형태로 자가 기준 으로 전세, 월세/기타로 구분해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을 기준으로 미혼, 이혼/별거, 사별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였고, 자녀수는 실제 응답자의 14세 이하 자녀수로 측정하였다. 이념은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으로, “귀하는 어느 정도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①매우 보수적, ②다소 보수적, ③중도, ④다소 진보적, ⑤매우 진보적”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이다. 종교는 응답자가 믿는 종교로서 없음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IV. 분석의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1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

표 1.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

변수	범주	빈도	비율 (%)
성별	여성	22,743	52.25
	남성	20,782	47.75
직업	무직	15,334	35.23
	관리 전문직	3,549	8.15
	화이트칼라	14,911	34.26
	블루칼라	9,731	22.36
주택소유 형태	자가	24,896	57.20
	전세	16,759	38.50
	월세/기타	1,870	4.30
혼인상태	기혼	31,510	72.40
	미혼	8,447	19.41
	이혼/별거	1,392	3.20
	사별	2,176	5.00
자녀수	0명	31,435	72.22
	1명	7,470	17.16
	2명	4,433	10.18
	3명	180	0.41
	4명	7	0.02
종교	없음	21,814	50.12
	있음	21,711	49.88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52.25%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은 무직이 35.23%로 가장 많았고, 화이트칼라 34.26%, 관리 전문직 8.15% 순이었다. 주택소유 형태는

자가가 57.20%로 가장 많았고, 전세 38.50%, 월세 및 기타 4.30% 순이었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이 72.40%로 가장 많았고, 미혼 19.41%, 사별 5.00%, 이혼 및 별거 3.20% 순이었다. 자녀수의 경우 0명이 72.22%로 가장 많았고, 1명이 17.16%, 2명이 10.18%, 3명이 0.41%, 4명이 0.02% 순이었다. 종교는 없음이 50.12%였다.

1.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위험인식	자연재해	43,525	3.30	1.00	1	5
	교통사고	43,525	3.44	0.93	1	5
	실업	43,525	3.41	0.95	1	5
	폭력범죄	43,525	3.49	0.94	1	5
	전염병	43,525	3.25	0.97	1	5
사회신뢰	43,525	2.35	0.78	1	5	
연령	43,525	45.23	14.43	20	98	
교육	43,525	2.44	0.68	1	4	
소득	43,525	4.46	1.30	1	6	
계층	43,525	3.89	0.84	1	6	
이념	43,525	2.91	0.92	1	5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위험인식은 5점 만점에 폭력범죄의 평균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의 평균은 3.44점, 실업의 평균은 3.41점, 자연재해의 평균은 3.30점, 전염병의 평균은 3.25점이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사회신뢰의 경우 평균은 2.3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았다. 연령의 경우 최대 98세였으며, 평균은 45.23세였다. 교육은 4점 만점에 평균 2.44점이었고, 소득과 계층은 6점 만점에 평균은 각각 4.46점, 3.89점이었다. 이념은 2.91점으로 약간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2. 회귀분석의 결과

다중회귀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사회신뢰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iegrist(2000) 및 Siegrist와 Cvetkovich(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믿는 경우 새로운 기술이나 위험요인을 덜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는 물론 교

표 3.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구분	자연재해	교통사고	실업	폭력범죄	전염병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Coeff. (S.E.)	
사회신뢰	-0.012** (0.006)	-0.073*** (0.006)	-0.012** (0.006)	-0.027*** (0.006)	-0.045*** (0.006)	
성별	-0.050*** (0.011)	-0.044*** (0.010)	-0.037*** (0.010)	-0.058*** (0.010)	-0.035*** (0.011)	
연령	0.005*** (0.001)	0.002*** (0.001)	-0.004*** (0.001)	-0.003*** (0.001)	0.003*** (0.001)	
교육	0.105*** (0.010)	0.041*** (0.009)	0.015* (0.009)	0.018** (0.009)	0.081*** (0.009)	
소득	0.002 (0.004)	0.054*** (0.004)	0.052*** (0.004)	0.056*** (0.004)	0.040*** (0.004)	
계층	0.020*** (0.006)	0.053*** (0.006)	0.091*** (0.006)	0.065*** (0.006)	0.036*** (0.006)	
직업	관리전문직 (0.020)	-0.042** (0.019)	-0.044** (0.019)	0.096*** (0.019)	0.068*** (0.019)	-0.043** (0.020)
	화이트칼라 (0.013)	-0.038*** (0.012)	-0.031*** (0.012)	0.056*** (0.012)	0.019 (0.012)	-0.026** (0.013)
	블루칼라 (0.014)	0.021 (0.014)	0.013 (0.013)	0.112*** (0.013)	0.034*** (0.013)	0.026* (0.013)
혼인상태	미혼 (0.018)	0.136*** (0.018)	0.061*** (0.016)	-0.033** (0.017)	-0.028* (0.017)	0.029* (0.017)
	이혼/별거 (0.028)	0.021 (0.028)	0.089*** (0.026)	0.065** (0.026)	-0.071*** (0.026)	0.078*** (0.027)
	사별 (0.024)	-0.045* (0.024)	-0.044* (0.023)	-0.004 (0.023)	-0.076*** (0.023)	0.019 (0.024)
자녀수	0.015* (0.008)	0.006 (0.007)	-0.022*** (0.008)	-0.017** (0.008)	0.014* (0.008)	
주택소유형태	전세 (0.011)	0.005 (0.011)	-0.042*** (0.010)	-0.039*** (0.010)	-0.011 (0.010)	-0.001 (0.010)
	월세/기타 (0.025)	0.064*** (0.025)	0.053** (0.023)	0.084*** (0.023)	0.105*** (0.023)	0.127*** (0.024)
이념	0.066*** (0.005)	0.043*** (0.005)	0.017*** (0.005)	0.031*** (0.005)	0.046*** (0.005)	
종교	0.051*** (0.010)	0.142*** (0.009)	0.103*** (0.009)	0.103*** (0.009)	0.043*** (0.009)	
절편	2.543*** (0.061)	2.826*** (0.057)	2.898*** (0.058)	3.007*** (0.058)	2.543*** (0.060)	
관측치	43,525	43,525	43,525	43,525	43,525	
F	24.91***	57.39***	56.94***	49.36***	26.65***	
R ²	0.0096	0.0219	0.0218	0.0189	0.0103	

주: * p<0.1, ** p<0.05, *** p<0.01

통사고와 같은 기술적 위험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범죄 같은 사회해체 위험, 질병 같은 건강상 위험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경제적 위험인 실업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도 같이 사회신뢰가 높아질수록 그 위험을 낮게 평가하였다.

통제변수들 중 성별은 음(-)의 영향을 나타내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위험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avage(1993)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한편 연령의 경우 자연재해, 교통사고, 전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실업과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나타냈다. 고령자일수록 신체적 건강이 떨어지므로 자연재해나 전염병, 교통사고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크게 인식해 이들 위험을 높게 평가하지만, 실업이나 폭력범죄는 고령자가 은퇴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경로사상 등으로 노인에 대한 폭력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들 위험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 소득, 계층 등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였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각종 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부터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직업의 경우는 무직에 비해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전염병 등에서 관련 전문직이 음(-)의 영향을 미쳐 보험 등의 위험분산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실업과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나타내어 자신들이 잃을 것이 많은 영역에서는 위험을 높게 평가하였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라는 경제적 위험에 대해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질병 등의 위험을 높게 평가한 반면, 경제적 위험과 사회해체 위험은 낮게 평가하였다. 자녀수는 경제적 위험인 실업과 사회해체 위험인 폭력범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자녀가 일종의 사회적 보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소유 형태의 경우 자가보다 월세/기타의 경우 위험요인을 더 위험하게 평가하였으며, 전세의 경우는 전

반적으로 자가보다 조금 낮게 위험을 평가하였다.

이념의 경우는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진보적일수록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는 Sjöberg과 Wahlberg(2002)와 Kouabenan(199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종교가 있는 경우가 위험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신뢰가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사회신뢰는 자연재해, 기술적 위험인 교통사고, 경제적 위험인 실업, 사회해체 위험인 폭력범죄, 건강상 위험인 전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이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효과적인 위험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근거 없는 위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써 사회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이 일상화된 위험사회에서 일반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온갖 루머가 사회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신뢰는 사회 전반의 위험인식, 특히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노후 핵발전 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놓고 위험인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핵발전소 주변주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특히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의 정도, 문화이론이 강조하는 문화적 성향, 개

인적인 위험기피 성향 등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결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및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보다 엄밀한 모형을 활용한 보완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이재열,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2] 김수아, 임동균, “위험사회의 사회심리학: 위험인식의 주관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7권, 제2호, pp.45-75, 2016.

[3] 김미숙, 이상영, 정진옥,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2013.

[4] 김영주, *정부신뢰, 재난경험, 사회적 자본이 재난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 C. Hohenemser, M. Deicher, A. Ernst, H. Hofsass, G. Lindner, and E. Recknagel, “Chernobyl: An Early Report,” *Environment: Science and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28, No.5, pp.6-43, 1986.

[6] O. Renn,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NY: Earthscan. 2008.

[7] J. Jackson, N. Allum, and G. Gaskell, “Bridging Levels of Analysis in Risk Perception Research: The Case of the Fear of Crime,”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7, No.1, Art. 20, (<http://nbn-resolving.de/urn:nbn:de:0114-fqs0601202>). 2006.

[8] M. Douglas and A. Wildavsky,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9] 이채식,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3호, pp.113-131, 2010.

[10] A. Giddens, “Risk and Responsibility,” *The Modern Law Review*, Vol.62, No.1, pp.1-10, 1999.

[11] O. Renn, *Risk Governance: Coping with Uncertainty in a Complex World*, NY: Earthscan. 2008.

[12] 이재열,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13] 이채식,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험인식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3호, pp.113-131, 2010.

[14] 김영란, “한국의 사회적 위험구조: 위험의 민주화 또는 위험의 계급화?,” *담론* 201, 제14권, 제3호, pp.57-88, 2011.

[15] A. Wildavsky and K. Dake,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Vol.119, No.4, pp.41-60, 1990.

[16] B. Chauvin, D. Hermand, and E. Mullet, “Risk Perception and Personality Facets,” *Risk Analysis*, Vol.27, No.1, pp.171-185, 2007.

[17] B. L. Choma, Y. Hanocha, M. Gummeruma, and G. Hodsonb, “Relations between Risk Perceptions and Socio-political Ideology are Domain- and Ideology- depend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4, No.1, pp.29-34, 2013.

[18] L. Sjöberg and A. Wahlberg, “Risk Perception and New Age Beliefs,” *Risk Analysis*, Vol.22, No.4, pp.751-764, 2002.

[19] I. Savage, “Demographic Influences on Risk Perceptions,” *Risk Analysis*, Vol.13, pp.413-420, 1993.

[20] J. K. Hakes and W. K. Viscusi, “Dead Reckoning: 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Accuracy of Mortality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Vol.24, No.3, pp.651-663, 2004.

[21] 이승훈, 최수정, “위험인식의 성별 차이와 그 원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제2호, pp.923-939, 2009.

[22] I. Savage, “Demographic Influences on Risk Perceptions,” *Risk Analysis*, Vol.13, pp.413-420, 1993.

[23] V. W. Mitchell and M. Grotorex, “Consumer Risk Perception in the UK Wine Marke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22, No.9, pp.5-15, 1988.

[24] W. R. Smith and M. Tostensson, “Gender Differences in Risk Perception and Neutralizing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37, No.4, pp.608-634, 1997.

[25] P. Slovic, B. Fischhoff, and S. Lichtenstein, “Characterizing Perceived Risk,” In R. Kates, C. Hohenemser, & J. X. Kasperson (Eds.), *Perilous Progress: Managing the Hazards of Technology*, pp.91-125,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5.

[26] 김재신,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2호, pp.1-16, 2011.

[27] 이지은, 이재완,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제49권, 제4호, pp.359-390, 2015.

[28] M. Poumadère, “Enjeux de la communication publique des risques pour la santé et l’environnement,”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Vol.45, pp.7-15, 1995.

[29] M. J. Viklund,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Western Europe: A Cross-National Study,” *Risk Analysis*, Vol.23, No.4, pp.727-738, 2003.

[30] L. Sjöberg, “Limits of Knowledge and the Limited Importance of Trust,” *Risk Analysis*, Vol.21, pp.189-198, 2001.

[31] M. Siegrist,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Risk Analysis*, Vol.20, pp.195-203, 2000.

[32] 서울특별시, 2013 *서울서베이*.

[33] 이수인,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4권, 제4호, pp.162-203, 2010.

저 자 소 개

이 재 완(Jae-Wan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정보공개, 정책평가, 사회정책